

95. 6. 18

ROTC 군기잡기 '죽음의 기합'

대학뒷산서 후배 집단폭행 숨지게...9명 구속영장

전북 이리경찰서는 17일 '군기가 빠졌다'는 이유로 학군단 후배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원광대 홍성경(22·경영대 4년·익산시 어양동)씨 등 학군 사관후보생 9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학군단 2년차인 홍씨 등은 지난 16일 밤 11시30분께 익산시 신용동 이 대학 뒷산으로 1년차인 김인곤(20·경영대 3년·전남 나주시 이창동)씨 등 학군단 후배 6명을 불러내 "동기애가 없고 군기가 빠졌다"며 기합을 준 뒤 발로 가슴과 배를 마구 때려 김씨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익산/임석규 기자